

“회복·도약의 새해... 코로나로 韓 재발견”

문 대통령, 화상 신년 인사회에서

“방역·백신·치료제로 반드시 소중한 일상 회복
한국판 뉴딜 본격적 실행... 선도국가로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특히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해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돼 준 한해이기도 하다”며 “불편을 견디며 상생의 힘을 발휘한 국민 모두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아직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 거둔 K-방역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해를 회복과 통합, 도약의 해로 명명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새해는 회복의 해”라며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많이 지쳤고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

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이로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며 “국민 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도 줄이는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긍정하고 자부하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울러 문 대통령은 “새해는 도약의 해”라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 우리는 결코 이류가 아니었고, 영원한 2등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K-방역과 빠른 경제회복 등 성과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또한 2050 탄소

중립 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희망으로 지켜냈다”며 “2021년 우리는 무보전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정예 농업인력 전북도, 집중 양성 나서

전북도가 미래 삼각농정을 이끌어갈 정예 농업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도는 전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5개 농과대학, 한농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마사고 등과 협력해 총 10개 사업에 65억 원을 투입, 2,300여명의 농식품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농식품산업 전문인력 2,039명을 배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에도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내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교육부 주관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가 협력해 농생명, 스마트 육종·식품 등 분야별 맞춤형 우수 인재 7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전문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식품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식품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8개 과정을 개설, 600명 육성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울러, 스마트팜 첨단농업과 종자·농기계 및 말산업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시설투자 등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별로 이끌어 갈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황에 맞게 분야별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정예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학대 의심 아이 진료기록 공유

이용호 의원 ‘정인이법’ 대표발의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의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련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은 7일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이 학대 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인이법’(의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은 아동학대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 사본 등을 다른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더라도 공유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무의식이거나 응



급상황,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전송이 가능하다.

또,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상 사법경찰관 등이 수행하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업무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더라도 처벌은 고작 5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이용호 의원은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학대를 일방성으로 은폐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아동을 진찰한 의료인이 정황 상 아동학대 피해의심이 든다면 예외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가 균형 발전·전북 현안 해결에 ‘공감대’

변창흠 국토부장관 예방
민주 김윤덕 의원, 현안
해결에 ‘힘 모아 나가자’

변 장관 “전북이 균형발전
수혜지역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국회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주요 관심사인 ‘국가 균형 발전’과 ‘전북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어려운 지금 시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 것은 축하드린다”라고 덕담을 건네면서 “평소 저와 변 장관께서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인 국가 균

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전 국토부 장관에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추진 ▲3기 신도시 자족기능 축소 ▲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요청드렸다”고 말

하며, “전북 현안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잼버리 개최 전 준공을 위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 ▲제2차 고속도로 구축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울러, 김 의원은 “전주시 현안으로는 ▲호남고속도로(삼례 IC-전주 IC) 확장 ▲전주-원주 수소 시범 도시 지원 사업 ▲드론 산업혁신지원센터 정비 구축 사업 ▲스마트 신호운영(ITS) 구축 사업 ▲인후반촌, 팔복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거리 공영주차타워 전면 보수 ▲역사도심 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우리

전북과 전주시가 연계된 사업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여기에 추가로 전북과 연계된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북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4차 국가 철도망,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대도시 광역권 전주 포함 등을 비롯한 전북 현안 사업을 장관께 협조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저는 학자 시절부터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해왔고 국토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주신 전북 현안뿐만 아니라, 전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수혜 지역이 되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